

제 1 교시

국어 영역 (A형)

[1~2] 다음은 가족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 들: 괜찮아요. 다들 하는 건데요, 뭐.
아버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지.
㉠우리 아들 여행가고 싶다고 했지?
아 들: (활짝 웃으며)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당연하지! 우리 아들 소원이었는데.
아 들: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아빠가 최고예요!
아버지: 아버지도 좀 쉬고 싶었단다. 어디가 좋을까?
아 들: 과제 연구가 2주 남아서 멀리 가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음……, 저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가서 신나게 놀이 기구 타면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요.
아버지: 에이, 여행인데 놀이동산보다는 음……, 등산은 어떠니?
아 들: (깜짝 놀라며) 등산이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아버지도 쉬고 싶으셨다면서요.
아버지: 등산이 뭐가 힘드니?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도 상쾌하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생기고.
아 들: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등산도 좋겠네요.
아버지: 너에게도 적절한 휴식이 될 거야.
아 들: (차분한 목소리로) 등산 가는 것이 어떻게 쉬는 것 이에요?
아버지: ㉣얼마 전 신문을 보니 등산은 근력 강화,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정신적 만족감을 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오래 앉아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성피로도 풀 수 있고, 오랫동안 책상에만 앉아 있는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아 들: 등산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등산이 맘에 들지 않아요.
아버지: ㉤힘들어 하는 너를 위해서 등산을 하자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하겠니?
어머니: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그러다가 두 사람 서로 마음 상하겠네요. 내 생각엔 두 사람 모두 우선, (㉠)

1.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화자가 상대방과의 대화에 사전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이 발화자의 언어적 표현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 ③ ㉢: 화자의 어조를 고려하면 발화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④ ㉣: 주장의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⑤ ㉤: 연령의 차이로 인해 상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대화의 내용과 참여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 ②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 ③ 대화의 화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지요.
- ④ 상대방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 봐요. 한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 ⑤ 서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알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죠.

3. 다음의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사용할 말하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학생: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학생: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학급 문집을 만들려면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
남학생: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추억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여학생: 그렇긴 하지. 그래도 반 아이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것 같지 않아.
남학생: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던 순간의 기쁨이라든지,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갈등과 무대에 올랐을 때의 감동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 마음도 움직일 거야.
여학생: 그래. 나도 아이들과 수학여행 가서 밤새 얘기를 나누었던 추억이랑 시험을 준비하며 함께 고생했던 기억을 학급 문집에 남기고 싶어.
남학생: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 보자.
여학생: 만약 반대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 보자.

- ① 권위자의 의견에 기대어 동참을 호소한다.
- ② 객관적 근거를 내세워 논리적 판단을 유도한다.
- ③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대상의 약점을 언급한다.
- ④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한다.
- ⑤ 교우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준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만 오면 목이 따갑거나 기침과 재채기를 심하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많은 학생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그런 증세는 호흡기가 우리에게 이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지역 초·중·고 724개 학교 가운데 11.6%의 학교가 미세 먼지 기준치인 1㎥당 150㎍을 초과했고, 50.4%의 학교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미세 먼지가 무엇인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3,000배로 확대한 미세 먼지입니다. 미세 먼지는 직경이 10㎛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고체나 액체 알갱이를 말합니다. 미세 먼지에는 중금속과 각종 부유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죽음의 먼지’, 미국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건물 실내의 환기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환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교실 내의 미세 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실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 먼지를 배출하고 물청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냉난방 장치의 필터를 청소하고 녹색 식물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공기 질 개선 방법입니다. 교실 내 공기 질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염 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실이 답답해 하면 우리들도 답답해합니다. 이제 교실이 숨을 쉬게 합시다.

4. 학생이 발표를 위해 계획한 메모이다.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교실 내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①
- ◆ 교실 내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야겠군. ②
- ◆ 외국에서도 미세 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다루어야겠군. ③
- ◆ 이산화탄소 농도로 교실 내 환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군. ④
- ◆ 교실 내 공기의 오염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해야겠군. ⑤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② 전문가의 이론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신뢰도를 높였다.
- ③ 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발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다.
- ④ 발표 주제의 의의를 말하고 비유적 표현으로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 ⑤ 사적인 상황에 어울리는 호칭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6~8]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2학년 2반 홍길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밥은 먹었나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중에서는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밥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아침밥의 긍정적 효과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아침밥을 먹는 것이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설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필자의 감정이나 감응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③ 예상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했다는 점에서, 작문은 자기 성찰을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⑤ 특정한 독자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인의 미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7.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통계 자료: 연령별 아침 식사 결식률

연령별 아침 식사 결식률

연령	결식률
12~18세	30%
19~29세	37.4%
30~49세	24.5%
50세 이상	8.1%

(나) 설문 조사: 청소년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

이유	비율
늦잠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	54.7%
입맛이 없어서	20.8%
체중 조절을 위해서	11.5%
아침 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	7.1%
기타	5.9%

(다) 연구 보고서

아침 식사와 평균 수명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성인병 예방과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뚱뚱해질 가능성이 30~50%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학교 ○○○ 교수

(라) 인터뷰 자료

아침 식사는 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학생은 식사를 통한 포도당 섭취로 두뇌 활동이 원활하게 되어 집중력이 향상되므로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식생활연구소 ○○○ 소장

- ① (가)를 활용하여 10대와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실제로 높다는 점을 보여줘야겠군.
- ②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음을 추가해야겠군.
- ③ (다)를 활용하여 아침 식사가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추가해야겠군.
- ④ (라)를 활용하여 아침 식사가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군.
- ⑤ (다)와 (라)를 활용하여 아침 식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제시해야겠군.

8. 윗글을 읽고 <조건>에 따라 쓴 캠페인의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캠페인의 취지를 반영할 것.
- 비유법과 대구법을 모두 활용할 것.

- ① 아침밥은 에너지, 밥그릇이 비워집니다.
내 두뇌는 발전소, 새 활력이 채워집니다.
- ② 당신의 아침밥, 생각만으론 부족합니다.
당신의 아침밥, 실천으로 시작하세요.
- ③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아침밥 먹기를 실천합시다.
- ④ 아침밥은 꼬박꼬박 챙기는 당신
아침 운동은 꼬박꼬박 챙기십니까?
- ⑤ 비어있는 당신의 건강,
아침밥 한 공기로 충전하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두 자료를 활용하여 ‘효’를 주제로 글을 써보자.

[도표] 부모의 노후 생계 책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
(단위 : %)

책임 대상	2002년 (%)	2012년 (%)
부모님 스스로	10	10
가족	70	35
가족과 정부, 사회	20	55

— 통계청, 2012

[신문 기사]

고등학교 2학년인 김 군(18, 남)은 간경화로 힘들게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 ○○신문 기사 중

작문 일지

오늘의 작문 과제는 두 자료를 활용하여 ‘효’를 주제로 한 글의 처음 부분을 쓰는 것이었다. 두 자료에 나타난 효에 대한 인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먼저 도표를 활용하여 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달라졌음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신문 기사만 활용하기엔 자료가 부족하여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효행 자료를 보충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효의 사례들은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래서 효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이라는 중심 화제를 제시하며 글을 썼다.

학생의 글

제목: 효, 일상에서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통계청이 최근 10년 사이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식 변화를 ㉠분류한 자료를 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002년 70%에서 2012년에는 35%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우선이다.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효에 대한 인식 변화는 충격이었다. 그런데 간경화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한 고등학생의 훈훈한 기사도 있었다. 또한 어느 병원의 자료에는 장기 기증자 중 53.1%가 자녀라고 나왔다.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효를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효의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9. ‘작문 일지’를 참조하여 학생의 글쓰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중심 화제와 관련된 제목을 정하여 글의 방향을 제시하였군.
- ② 도표의 내용을 활용하여 효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었군.
- ③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려 하는군.
- ④ 효에 대해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 두 자료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군.
- ⑤ 신문 기사만으로는 글감이 부족하여 보충 자료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군.

10.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조사한’으로 바꾼다.
- ② ㉡: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부모님을’을 넣는다.
- ④ ㉣: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비로소’로 고친다.
- ⑤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11.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받침 ‘ㄱ, ㄷ, ㅂ’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뽵], 뽀다[뽀따] ㉠
-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넘고[넘꼬] ㉡
- 관형사형 ‘-ㄴ’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수는[할쑤는], 만날 사람[만날싸람] ㉢

- ① ㉠~㉢은 모두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군.
- ② ‘밤길’이 [밤깁]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③ ‘껴안다[껴안따]’를 ㉡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칙이군.
- ⑤ ‘기쁜 소식[기뽀소식]’으로 보아 ㉢과 달리 관형사형 ‘-ㄴ’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군.

12.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의 설명]

보조사 ‘도’는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 체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나 부사,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되어 ‘더함’이나 ‘동격’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다음 수업 자료를 보면서 ‘도’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볼까요?

[수업 자료]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때까지 신나게 뛰어 놀고 내가 좋아하는 ㉠추구도 함께 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편소에도 잘 먹지 않던 나물 반찬이 많아 밥만 먹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반찬도 먹으라며 나무라셨다. 저녁을 대충 먹고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 ① ㉠: 보조사 ‘도’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 ② ㉡: 보조사 ‘도’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
- ③ ㉢: 보조사 ‘도’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
- ④ ㉣: 보조사 ‘도’를 통해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군.
- ⑤ ㉤: 보조사 ‘도’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13.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체언+체언’의 구성으로 된 경우이다.

- ① 그는 새 운동화를 신었다.
- ② 그녀는 겨우 작품을 완성했다.
- ③ 소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 ④ 이곳은 내가 다니던 학교이다.
- ⑤ 지도자는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14. <보기 1>의 자료를 읽고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절(節)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결합되어,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서술절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절을 포함한 전체 문장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이외에 서술절(주어+서술어)을 지니고 있다.

—<보기 2>—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ㄴ. 이 산은 나무가 많다.
ㄷ.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② ㄱ의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④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⑤ ㄴ의 ‘나무가’와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가)~(마)에 대해 학생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대화 상황에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일지라도 화자와 청자가 상황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다. 이때 성분 생략의 기본 요건은 복원 가능성이다. 즉 상황 맥락을 공유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생략된 성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어, 대화 참여자가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가) 선생님: (깨끗한 교실을 보며)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반 장: (철수가 청소한 것을 알고) 철수가요.

(나) 선생님: (반장을 불러 심부름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반 장: (아무도 심부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 했어요.

(다) 선생님: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좀 치워라.
반 장: (선생님이 책상에 널려 있는 책을 치우라는 것으로 알고) 네, 선생님.

(라) 선생님: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좀 치워라.
반 장: (신발장을 보며) 네, 선생님.

(마) 선생님: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좀 치워라.
반 장: (신발장 정리를 끝내며) 끝냈어요.

- ① (가)와 (나)의 반장은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하며 말하고 있군.
- ② (가), (나)를 보면 똑같은 형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생략된 문장 성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군.
- ③ (다)의 반장은 상황 맥락을 공유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군.
- ④ (라)의 반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군.
- ⑤ (마)의 반장이 생략한 성분을 복원하여 말한다면 ‘제가 선생님께서 시키신 신발장 정리를 끝냈어요.’ 정도로 볼 수 있겠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물리학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물질의 기본 단위로 여겼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더 작은 입자에 대한 가설과 실험을 바탕으로 ㉠『표준모형(standard model)』의 개념이 성립되게 되었다. ‘표준모형’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로 구성된다. 기본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와 전자 등을 말하며, 매개 입자는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를 말한다. 이때 매개 입자는 독특한 대칭성을 지니고 있어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표준모형’의 개념은 현실 세계에서 입자들이 실제로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어 모순에 빠졌다.

이러한 ‘표준모형’의 이론적 모순 상황에서 1964년 피터 힉스 교수는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만드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수아 앙글레르 교수는 질량이 없던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 힉스 메커니즘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대칭성이 깨진 매개 입자는 힉스 입자의 원형인 힉스 장(field)의 일부 요소를 흡수하여 질량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본 입자도 힉스 장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질량을 가지게 된다. 이때 힉스 장과 입자의 상호 작용이 강할수록 입자들의 질량은 커지고, 상호 작용이 약한 입자들은 질량이 작아지게 된다. 한편 다른 입자로 흡수되지 않고 남은 힉스 장의 요소는 힉스 입자라는 새로운 입자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힉스 입자는 질량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매우 짧은 순간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게 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힉스 입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 입자가속기를 통해 힉스 입자를 인위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입자 가속기는 양성자나 이온 등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들을 전자기력을 이용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속도를 높여 주는 장치이다. 가속기 내 자기장을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설치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A] 전하를 띤 입자가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는 원리를 이용하여 입자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빛에 가까운 속도를 지니게 된 입자들을 인위적으로 충돌시키면, 붕괴된 입자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새로운 입자를 검출기를 통해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는 둘레 27km에 이르는 거대한 원형 입자 가속기로 두 개의 양성자를 강력한 전기장과 자석으로 가속한 후 정면 충돌시켜 힉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다. 최근 이러한 실험으로 관측된 새로운 입자가 ‘표준모형’의 힉스 입자와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관심을 끌고 있다. 힉스 입자로 여겨지는 새로운 입자의 발견은 입자들의 질량 차이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과학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새로운 입자의 발견으로 인해 오랜 난제였던 ‘표준모형’의 이론적 완성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자는 기본 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기본 입자는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매개한다.
- ③ 힉스 입자는 기존의 입자에 흡수된 후 사라진다.
- ④ 현실 세계에서 모든 입자는 질량을 지니고 있지 않다.
- ⑤ 힉스 장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입자들의 질량이 달라진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질의 기본 단위에 대한 가설에서 출발한 모형이다.
- ②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④ 현실 세계의 상황과 맞지 않아 새로운 입자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 ⑤ 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론적 완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입자 가속기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암 치료기이다.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 정교한 조작을 거쳐 암세포와 부딪치게 만든다. 기존의 암 치료법은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부작용이 많았다면,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는 정상 세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인체 깊숙한 곳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 ① 탄소 입자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 ② 탄소 입자를 암세포에 인위적으로 부딪치게 만들겠군.
- ③ 탄소 입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기력이 필요하겠군.
- ④ 탄소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관련이 있겠군.
- ⑤ 탄소 입자를 관측하기 위한 검출기가 가속기에 설치되어야 하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친자연적이라는 것이다. 친자연적이란 일반적으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건축에서는 자연적인 재료의 가공을 최소화하여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흰 나무의 사용이다. 흰 나무는 궁궐에서부터 민가, 불교 건축에서 유교 건축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었다.

먼저 하회마을 병산서원에 있는 만대루에는 흰 나무가 누각의 1층에 해당하는 하단 부분에서는 기둥으로, 2층에 해당하는 상단부에서는 보로 사용되었다. 흰 기둥이 하단을 받치고 상단부에서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흰 나무가 기둥과 대들보로 사용되고 있어서 안정감을 위해 나무를 덧대거나 추가적인 구조물을 설치했을 것 같지만, 만대루에는 곧은 기둥이나 흰 기둥들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용되어 구조적인 안정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병산서원의 백미로 평가받는 만대루는 이렇게 흰 기둥을 사용하여 자연 재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흰 나무를 ㉠쓰는 또 다른 건축물로 개심사의 범종각을 들 수 있다. 범종각에는 누각을 ㉡이루는 기둥 네 개에 모두 흰 나무가 사용되었다. 심하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네 군데 모두 사용하다 보니 범종각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인다. 하지만 곧은 나무를 사용한 누각과 ㉢다르지 않게 널따란 지붕을 거뜬히 잘 받치며 오랫동안 잘 유지되어 왔다. 개심사 범종각의 흰 기둥은 건축물에 울동감을 ㉣주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상태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치장은 욕심이며 불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정신적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엄숙한 불교 건축에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 가치라고 알려 준다.



<만대루>



<개심사 범종각>

만대루와 개심사의 흰 기둥은 자연의 교훈을 깨닫게 한다.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일부러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의 일부인 흰 나무는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이며 완결된 생명체이다. 그러니 일부러 ㉤꾸미지 않고, 가공하지도 않는 것이 휘어 있는 나무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곧은 나무든 휘어진 나무든 모양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기둥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선인들의 믿음과 평등 의식을 깨닫게 된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종각의 흰 기둥들은 건물에 울동감을 준다.
- ② 흰 나무는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 ③ 친자연적 건축관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이다.
- ④ 만대루에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흰 기둥이 사용되었다.
- ⑤ 흰 기둥에는 자연 상태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20.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990년대 중반 프랭크 게리가 지은 ‘프레드 앤 진저 빌딩’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도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이다. 이 빌딩은 정형성을 강요하는 기존의 건축 경향을 현실성이 없는 가식이라 비판하는 건축 양식을 대표한다.

- ① 흰 기둥과 달리 <보기>는 종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
- ② 흰 기둥과 달리 <보기>는 의도적으로 기둥을 휘게 만들었다.
- ③ <보기>와 달리 흰 기둥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보기>는 흰 기둥처럼 정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 ⑤ <보기>는 흰 기둥처럼 기존의 건축 경향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 건축되었다.

21.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용(使用)한
- ② ㉡: 구성(構成)하는
- ③ ㉢: 상이(相異)하지
- ④ ㉣: 부과(賦課)하면서
- ⑤ ㉤: 치장(治粧)하지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삶은 판단과 의사 결정의 연속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매우 중대한 문제까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오늘 점심은 분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등과 같이 일상 속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계속된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어진 정보가 불확실하며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간적 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제한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 해답이 필요하다. ‘편의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편리한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표성 편의법과 가용성 편의법이다.

대표성 편의법은 주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러 자료를 참작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속할지도 모르는 범주의 전형적인 경우와 유사한 정도에 의해 판단하는 방법이다. 즉,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할 때 한두 가지 대표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기자와 도서관 사서 직원 중 어떤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서 직원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표성 편의법을 사용하면 대표성만을 따지고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게 되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표성 편의법과 아울러 널리 사용되는 편의법은 기억에 의존하는 수법이다. 가용성 편의법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여기서 가용성이란 가설의 예 혹은 가설 자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용이성의 정도를 말한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흔히 기억에서 가장 쉽게 인출해 낼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제보다 높게 추정하게 된다. 결국 가용성 편의법에 의한 판단 오류는 기억에서나 실제로 더 쉽게 구해지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이러한 가용성 중심 처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편의법은 판단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해답에 빨리 도달하게 하고 그 나름대로 편리한 기준을 제공하므로 제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택된 대안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22. ‘편의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사용된다.
- ② 확실하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 ③ 판단이나 의사 결정 시 해답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 ④ 가용성 편의법의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 ⑤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가용성 편의법이 더 정확하다.

23. 밑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보기>의 사례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국어 수업 시간에 ‘사투리’를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사투리를 쓰는 A는 우리나라 국민 중 사투리를 쓰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사투리를 쓰지 않는 B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① A와 B는 모두 가설이 마음에 떠오르는 용이성의 정도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 ② A와 B는 모두 전형적인 경우와 유사한 정도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 ③ A와 B는 모두 주어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 ④ A와 달리 B는 한 가지 대표되는 특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 ⑤ B와 달리 A는 기억에서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 수도 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가정마다 수동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는데, 펌프질만으로는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물 한 바가지를 넣어 펌프질을 했다. 이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끔 도움을 주는 소량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다. 이렇게 마중물과 같이 작은 자극이 원인이 되어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마중물 효과라 한다.

처음 ①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경제 불황의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 수입을 감소하는 등의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마중물 효과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 장학 사업 같은 사회사업 분야 및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은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다.

기업이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단순한 단기간의 이윤 증대가 아니다.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마중물을 이용해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중물의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소비자의 꾸준한 구매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마중물을 활용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마중물 효과이다. 그래서 기업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여 제품 체험 행사, 1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덤 마케팅, 대형 마트의 시식 행사,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마중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이때 소비자가 마중물을 힘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지나친 [A] 소비 활동을 하는 공돈 효과*를 일으킨다면 기업은 더 큰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의도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마중물을 제공하지 않자 제품에 대한 구매가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면, 마중물 효과는 단지 광고나 판매 촉진 활동과 같은 일시적인 매출 증대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와, 마중물을 투입하였는데도 기업의 매출에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중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일부 체리피커*들에게 독점된다면 기업의 이윤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마중물을 동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할인이나 끼워주기와 같은 기업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가격 정책에 흔들리기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단순히 마중물이 주는 혜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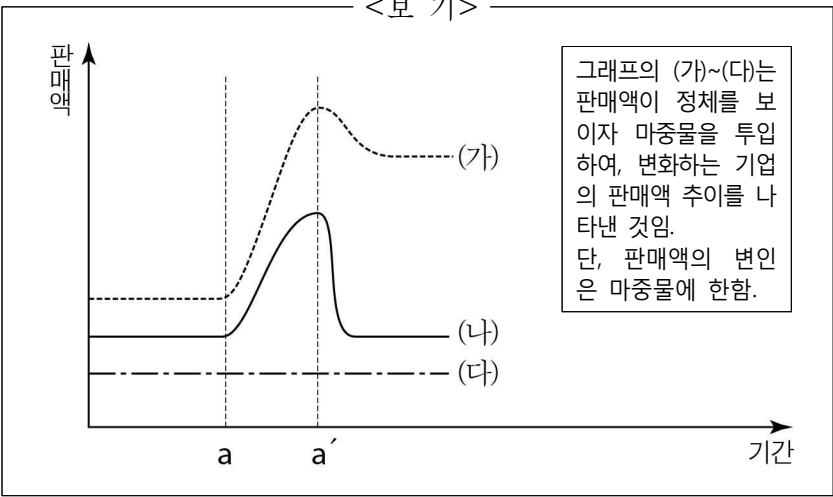
* 공돈 효과: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공돈)을 얻게 되면 전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현상.
* 체리피커: 상품의 구매 실적은 낮으면서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비자.

24.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통념의 반박을 통해 기업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 ②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의 안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③ 마중물 효과 이론의 변천사를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 ④ 다양한 경제 현상의 소개를 통해 경제 활동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 ⑤ 대상이 지닌 특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당부하기 위해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중물 효과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 ② 마중물 효과로 기업이 이익을 높이는 데 체리피커들은 큰 기여를 한다.
 - ③ 마중물로 제공되는 혜택이 크면 클수록 마중물 효과는 더욱 잘 일어난다.
 - ④ 마중물 효과는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 ⑤ 마중물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촉구하는 것이다.

26.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뱃값을 인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
 - ② 신차 구매 시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시킴.
 - ③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를 올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킴.
 - ④ 각종 선심성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음.
 - ⑤ 독도 주민에게 영업에 따른 세금을 처음으로 부과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함.

27.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나)로 보아 a에서 a' 동안에 마중물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는 기업이 의도하던 대로 이익이 창출된 경우이다.
- ③ (나)는 a에서 a' 기간 중에 판매액이 증가된 것을 보니 기업의 이윤도 증가했다.
- ④ (나)는 단기적으로 판매액이 증가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아니다.
- ⑤ (다)는 제품의 판매액이 변함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이윤은 감소했다.

[28~30]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엘리베이터 군(群)관리시스템은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동작을 적절히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상하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까지 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복수의 엘리베이터 중에 승객에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들어온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승객은 엘리베이터에 탄 뒤에 각자 자신이 원하는 행선층의 버튼을 누른다. 이때 승객들의 선택이 다양할수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행선 예보 방식이다.

엘리베이터 군관리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행선 예보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승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승강장에 마련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미리 입력하게 한다. 그러면 승객들의 행선층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 각 층에 타고 내리는 승객 수 등을 계산하여 그 승객이 타야 할 엘리베이터가 배정된다.

예를 들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건물의 1층에 각 층을 가려는 승객 2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승객들이 자유롭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면 각 호기는 거의 매 층마다 정차하게 되어 승객들의 수송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행선층의 정보를 미리 분석하여 행선층이 같은 승객끼리 묶어서 엘리베이터를 배정한다면 모든 승객이 거의 한 번 만에 행선층에 도착할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엘리베이터에 같은 층을 가려는 사람들만 배정하면 승객의 수송 시간은 단축되지만, 대신 운행해야 하는 엘리베이터의 수가 많아져 전력 소비량은 늘어날 수 있다.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것보다 최소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선 예보 방식은 승객의 수송 시간과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여 행선층이 비슷한 승객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배정하게 된다.

㉠행선 예보 방식의 시스템은 주군제어기, 보조군제어기, 호기제어기, 행선층 입력 장치, 원격 모니터 장치로 구성된다. 승객이 각 층에 설치된 행선층 입력 장치를 통해 행선층을 입력하면, 주군제어기는 입력된 호출에 대한 최적의 호기를 결정하고, 이를 다시 행선층 입력 장치에 전달한다. 그러면 행선층 입력 장치가 승객이 타야 할 호기를 표시한다. 호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의 호출을 받아 이를 각 엘리베이터에 전달하여 엘리베이터가 호출된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며, 만약 주군제어기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주군제어기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원격 모니터 장치는 주군제어기와 통신하며 주군제어기의 작동 정보를 분석하고 표시한다.

28. ㉠과 유사한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놀이동산에서 자유 이용권을 발매하여 다양한 놀이 기구를 제약 없이 즐기게 한다.
- ② 복잡한 지하철에서 출입문 양쪽으로 순서대로 줄서게 하여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한다.
- ③ 버스 정거장에서 도착할 버스의 정보를 미리 승객에게 제공하여 승객이 탈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게 한다.
- ④ 은행에서 대기표를 발급하고 고객의 순서가 되면 호출하여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게 한다.
- ⑤ 식당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에게 미리 주문을 받아 음식을 종류별로 조리하여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게 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군제어기는 입력된 호출을 바탕으로 승객이 타야 할 호기를 결정한다.
- ② 호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담당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면서 주군제어기의 명령을 수행한다.
- ③ 보조군제어기는 주군제어기와 번갈아 가며 작동하며 주군제어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 ④ 원격 모니터 장치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주군제어기의 작동 정보를 분석한다.
- ⑤ 행선층 입력 장치는 행선층의 정보를 전달하는 입력 기능과 결정된 호기를 표시하는 출력 기능을 담당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행선 예보 방식으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1호기, 2호기는 현재 지하 1층에 대기하고 있고, 이 중 1호기에는 3층에 가려는 승객이 이미 탑승해 있다. 1층에서 승객 A와 B가 각각 3층과 5층으로 가기 위해 행선층 입력 장치에 호출을 한 상태이다.

(단, 전력 소비량은 두 호기의 이동 거리를 더한 것에 비례함.)

- ①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A와 B는 모두 2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②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A는 2호기에, B는 1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③ 승객 수송 시간을 고려하면 A와 B는 모두 1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④ 승객 수송 시간을 고려하면 A는 1호기에, B는 2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 ⑤ 승객 수송 시간과 전력 소비량을 함께 고려하면 A와 B는 모두 2호기에 타게 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B]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C]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D]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E]

— 김광규, 「상행(上行)」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의 방식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수미상왕의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2.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너’에서 ‘너’와 ‘나’로 대상을 확장하여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촌은 외형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성장 추구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에 물들어 갔으며, 전시 행정에만 급급했던 ‘지붕 개량화 사업’과 같은 정책들은 실질적인 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잃어 버렸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소시민적 삶에 매몰되어 갔다.

- ①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과는 분리된 채 전시 행정에만 급급했던 결과물이겠군.
- ② ‘흥미 있는 주간지’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풀벌레의 울음’은 환경 오염을 방치한 채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하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부작용이겠군.
- ④ ‘맥주나 콜라’는 당시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포괄하여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⑤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는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당대 사람들의 소시민적 삶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우선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연 회색이 미웠다. 백발에 듬성듬성 검은 머리가 궁상맞게 섞여서 머리도 회색으로 보였고 입은 옷도 늘 찌들은 행주처럼 지쳐 빠진 회색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회색빛 고집이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노라는 생활 태도에서 추호도 물러서려 들지 않는 그 무섭도록 단단한 고집. 나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사는 것을 재미나 하고픈, 다채로운 욕망들은 이 완강한 고집 앞에 지쳐 가고 있었다.

회색빛 벽지에 몸을 기대듯이 앉은 어머니의 부엌고도 고집스러운 모습, 의치를 빼놓은 입의 보기 싫은 다물새, 이런 것들을 피하듯이 나는 건넌방으로 건너와 불을 켰다.

혁이 오빠와 옥이 오빠가 같이 쓰던 장방형의 드넓은 방은 전압이 낮은 30족의 전등으로 고루 비추기에는 너무 넓었다. 네 귀퉁이가 어두운 채 남겨진 불그죽죽한 밝음 속에서 나는 세차게 몸서리를 쳤다. 나는 나를 둘러싼 이 우울한 외로움에 좀처럼 익숙해질 수 없었다.

“그때는 좋았었지…….”

늙은이처럼 푸듯이 뇌까리며 벽에 걸린 기타의 젤 굵은 줄을 엄지와 집게로 잡았다 놓으니 음산한 저음이 둔중하게 울렸다. 옥이 오빠 손에서 갖가지 재미나는 가락을 내던 것—기타 소리뿐이었을까? 그때의 생활은 온통 소란스럽고도 신나는 음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음향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색채, 위태롭도록 다채롭고 현란한 색채가 있었던 것 같다.

벽면을 가득히 메운 잡다한 것들—압정으로 가로세로 혹은 비스듬히 눌러놓은 각종 기념사진, 배우들의 브로마이드, 서툰 데생, 제법 그럴듯한 수채화, 그림엽서, 괴물처럼 늘어진 야구 글러브, 때묻은 유도복—어떤 용한 무당도 아마 이 방주인들의 취미나 생활을 점칠 수는 없으리라.

그들은 늘 몹시 바빴고, 난 또 얼마나 바빴었을까. 세상에는 재미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좋아할 것이 연달아 널려 있어서 혁이 오빠도 옥이 오빠도 눈이 돌 지경이었고, 난 또 그것을 덩달아 하느라 신이 났었다.

우리 집에 무상출입하는 오빠들의 유쾌한 친구들을 좋아했고, 그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유행 음악에 덩달아 열중했고, 그들이 반한 영화배우에 나도 반했고, 그리고 부드럽고 말랑한 손과 구수한 음식 솜씨를 가진 우리들의 어머니를 또한 얼마나 사랑했던가.

나는 벽면의 난잡한 진열품들을 살살이 훑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기타 줄을 튕기고 자리에 엎드렸다.

가슴 밑 명치께가 요사이 늘 그렇듯이 체중 비슷한 거북함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엎드린 채 그 밑에 베개를 괴고 지그시 눌렀다. 난 알고 있었다. 그 속에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세차게 꿈틀대고 있는지를.

그러나 도대체 누구를 덩달아, 누구를, 무엇을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할 만한 가치, 열중할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데 실로 혁이나 옥이 오빠만 한 날쎈 재주꾼이 또 있을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친구도 “그치 그래 배도 이것 하난 국보적이지” 하며 공차는 품을 지어 보인다는가 “그 새긴 꼴

은 꺼병해도 속이야 꼭 찼거든” 어찌구 단언을 할라치면 난 금세 그들이 그렇게 보였고 그들을 좋아할 수 있었다. 난 오빠들을 통해서만 모든 사물을 받아들였고 이해하려 들었었다.

그들이 없는 지금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도 사랑하던 어머니까지도 어찌면 그렇게 보기 싫게 퇴색해버리는 것일까?

(나) 나는 어머니의 까실한 손이 똑 알맞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정성껏 애무하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나의 미래에의 꿈을 마음껏 누렸다.

“가엾은 나의 엄마. 엄마가 그런 걸 보셨다니.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줄이야. 그렇지만 엄마,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오빠들 뭇까지 효도를 하고 말고요. 가엾은 나의 엄마,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손 사이에 받들고 기도 드리듯이 경건하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어머니가 별안간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눈이 부신 듯이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열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엄마, 나예요, 경아.”

나는 벽찬 탄성을 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에 부연 안개가 걷히고 어떤 감정이 담겼다. 나는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로부터 비끼면 모처럼 돌아온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훌쩍 떠나 버릴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의 눈에 눈을 맞추었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게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부시시 돌아눕더니 휴 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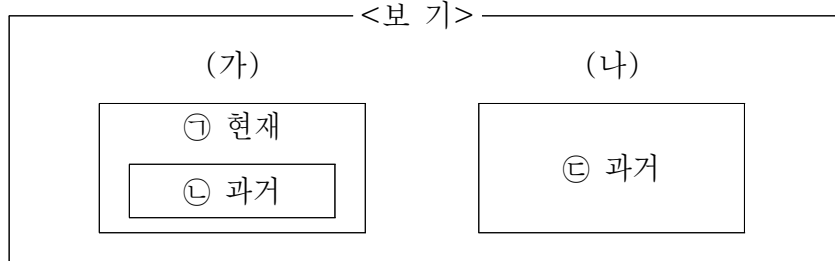
“어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

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부엌에 흐려 보였다. 나는 그 부연 것을 헤치려고 자꾸만 눈을 꿈벅이며 북창문을 열었다. 우수수하고 스산한 바람이 치마폭으로 펄럭 안겨왔다. 나는 맥없이 몸을 떨었다. 바람이 다시 뒷마당을 [A] 골고루 휩쓸었다. 쇠아 하고 정원수들이 상쾌하고도 축디추운 소리를 냈다. 나는 비로소 자지러지게 노오란 은행나무를 보았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는 얼마나 풍부한 의상을 걸쳤기에 저렇게 노란 빛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저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꽃보다도 훨씬 찬란했다.

— 박완서, 「나목」 —

34. 윗글을 <보기>와 같은 구조로 이해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간상으로 ㉔은 ㉑과 ㉒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㉑에 나타나는 ‘나’의 외로움은 ㉒과 관련이 있다.
- ③ ㉑에 드러나는 ‘나’의 갈등의 원인을 ㉔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㉑과 ㉒의 분위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㉒과 ㉔은 서로 다른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다.

35.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위기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진행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을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설에서 색채 이미지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나목」에서 ‘회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나’에게 ‘회색’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와/과 동일시되고 있다.

- ① 퇴색해 버린 ‘나’의 미래
- ② 단란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
- ③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린 자신
- ④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오빠들
- ⑤ 삶의 의욕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어머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窓) 밖에 석로(石路)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이명환 —

(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도 다 쉬어 넘
는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개,
그 너머 넘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
어 가리라.

- 작자 미상 -

(다)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외에 ㉠매에 쫓긴 까투리 맘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도 끓고 돛대도 꺾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천지(天地) 적막
(寂寞) 까치놀* 뒸는데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
의 맘과
엇그제 님 여윈 ㉢내 맘이야 어디가 같다하리오.

- 작자 미상 -

* 산지니: 산에서 자라 여러 해를 묵은 때.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

* 보라매: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

* 용총: 배의 돛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쓰는 줄.

* 까치놀: 석양을 받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득거리는 노을.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의탁하여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38.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近來安否問如何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月到紗窓妾恨多
꿈 속의 님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若使夢魂行有跡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門前石路半成沙
— 이옥봉, 「몽혼(夢魂)」 —

- ① (가)와 <보기>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② (가)와 <보기>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군.
③ (가)의 ‘자취’와 <보기>의 ‘자취’는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④ (가)의 ‘님의 집 창(窓)’과 <보기>의 ‘달 비친 사창(紗窓)’의 ‘창’은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군.
⑤ (가)의 ‘석로(石路)라도 닳으리라’와 <보기>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에서 ‘길’의 상태가 변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군.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② ㉡: 임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③ ㉢: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소재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④ ㉣: 악화되는 상황의 열거를 통해 ‘도사공’의 심리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까투리’, ‘도사공’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40~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뽀뽀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났다.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학기 시작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 달라고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 했다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굵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중략)

“아, 글썽 기다리면서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예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 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배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 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데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 장영희, 「미안합니다」 —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을 제시하여 교훈적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반어적 진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상과 다른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내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⑤ 사건의 양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글쓴이는 일상의 경험을 계기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한다. 다음은 주요 사건과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
영수와
의
사건

→

㉡
주차 문제로
엮힌 사건

→

㉢
글쓴이의
깨달음

- ① ㉠과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 글쓴이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할지 생각하게 하겠군.
- ② ㉠에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던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겠군.
- ③ ㉠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영수를 이해하고 사과하려 했지만 ㉡을 보며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군.
- ④ ㉡을 통해 글쓴이는 ㉢에서 사과의 말이 주는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군.
- ⑤ ㉢ 이후에 글쓴이는 ㉠의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생은 공연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문득 파랑새가 날아와 이생의 앞에 앉았다. 놀라서 보니 다리에 피 묻은 비단 조각이 매여 있었다. 이생이 그 비단 조각을 끌어서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숙향은 전생에 지은 죄를 이승에 와서도 갚기 어렵도다. 금석(金石)같은 인연이 변하여 바람이 되었구나. 향기로운 꽃이 속절없이 낙양 옥중에서 흩어 되리로다. ①슬프다! 낭군을 다시 못 보고 죽게 되니, 저승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이생이 대성통곡하며 그 글을 고모님께 드린 후, 낙양 옥중으로 가서 낭자와 함께 죽으려 하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아직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너무 서둘지 말거라.” 하고 할미집에 사람을 보내 사정을 알아오라 하였다.

(중략)

이때 상서가 김전의 서찰을 보고 크게 화가 나서 김전을 계양 태수로 보내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낙양 수령으로 보내 기어이 낭자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문득 여부인이 오신다 하는지라. 상서가 놀라며 반갑게 맞아들이니, 부인이 벌떡 화를 내며 말했다.

“그대가 이제 벼슬과 위엄이 높다 하여 부모와 누이도 버리려 하는가?”

이에 상서가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 부인이 말했다.

“상서는 재상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면서 인륜 가운데 무엇이 으뜸으로 삼는가?”

“오륜을 으뜸으로 삼나이다.”

“그러면 상서와 나의 관계도 오륜에 드는가?”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 했으니, 어찌 오륜에 들지 않으리이까?”

“상서가 비록 벼슬이 높으나 내게는 다섯째 아우이고,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어 계시지 않으니 내가 또한 아버지가 버금이라. 그런데 상서는 나 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니, 쓸데가 없도다. 차라리 상서의 마음이나 시원하도록 여기서 죽으리라.”

이에 상서가 대경실색하여 관을 벗고 땅에 내려와 사죄하며 말했다.

“이 아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어서 말씀해 주소서,”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어려서부터 내가 양자로 삼아 길렀으니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지라.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선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하니, 저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 사람을 배필로 삼지 못하면 맹세코 이 세상에 살지 못하리라’ 했네. 내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이니,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또한 그리하면 마음을 잡고 학업에 정진하고자 할 것이니 선이 급제 하여 벼슬을 할 수 있으리다.’ 하여 혼인을 주관한 것이요, 그런데 상서가 그토록 이 일을 분하게 여겨 기어이 낭자를 죽이려 하니, 그것이 무슨 도리요? 내가 비록 잘못 했을지라도 내게 조용히 말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몰래 낙양 수령에게 기별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려 했으니, 그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대장부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천하를 다스려야 하거늘, 어찌 그토록 무례한 일을 하여 후세에 시뻘거리가 되려고 하는가?”

여부인이 상서를 심하게 꾸짖으니 상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여쭙기를,

“누님께서 주관하신 줄 몰랐나이다. 요즘 ‘선이 부모 모르게 미친한 사람을 얻었다’하여 조정이 들끓기에 낙양 수령에게 기별했나이다.”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애정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지라. 옛날 송나라 황제도 정궁을 폐하고 후궁을 맞이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한 일이 있소. 내가 비록 그대 모르게 주관했으나, 그 남자는 첩과는 다르오. 그러니 더 이상 죄 없는 남자를 죽이려 하지 마시오.”

상서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지만, 만누이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리다.”

하고 새로 보낸 낙양 수령을 불러 분부했다.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우리 누님이 하도 말리시니 그럴 수가 없도다.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놓아주되, 멀리 보내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때 상서가 생각하기를, ‘선이 낙양에 있으면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것이니, 이곳으로 데려오리라.’

(중략)

이생이 서울에 이르러 상서께 절을 올리니, 상서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라. 우리가 알아서 네 배필을 정해줄 것인데, 네가 우리도 모르게 멋대로 미친한 여자를 얻었다 하니 너는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나 누님의 낫을 보아 이번에는 용서하오니, 급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눈에 띄지 말고 태학에 가서 공부하거라.”

이에 이생이 울면서 사죄하고 태학으로 갔는데, 상서는 여부인 때문에 숙향을 죽이지 못한 것을 못내 한탄하더라.

이때 김전은 계양 태수로 옮겨가고, 새 사또가 부임하여 즉시 남자를 불러올려 말하기를,

“너는 누구인데 상서 님 귀공자를 유혹하여 학업을 전폐케 했느냐? 마땅히 죽일 것이로되 특별히 용서하여 풀어주노니, 이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거라.” 하여 분부하고 내쫓았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4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 부임한 낙양 수령은 숙향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 ② 상서는 여부인의 말을 받들어 자신의 의사를 바꾸고 있다.
- ③ 여부인은 상서의 부탁을 받아서 이선의 혼인을 주관하였다.
- ④ 숙향은 옥에 갇히게 되자 이선을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⑤ 이선은 숙향이 옥에 갇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할미집에 갔다.

43. [A]에 나타난 ‘여부인’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④ 후세의 평가를 언급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 ⑤ 이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향전」에서의 성리학적 윤리 규범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윤리 규범은 자유로운 애정을 억압하고 봉건적 신분 관계를 고수하려는 장치로 나타난다. 반면 성리학적 윤리 규범을 앞세워 자유의지를 옹호하기도 하며 기존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기도 한다.

- ① 상서가 이선과 숙향을 떼어 놓으려 하는 것은 봉건적 신분 관계를 고수하려는 것이겠군.
- ② 숙향이 옥에 갇혀 시련을 겪는 것은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군.
- ③ 이선이 부친의 명에 따라 이별하는 것은 기존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④ 여부인이 오류를 내세워 상서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유로운 애정을 옹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⑤ 이선이 미친한 사람과 혼인하여 조정이 들끓었다는 것은 지배층이 신분 질서에 대해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45. ㉠에 나타난 ‘숙향’의 심정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전전궁궁(戰戰兢兢)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